얼굴이 홍당무 같다

막4:1-20(10-12)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홍당무 같은 얼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홍당무 같은 얼굴'은 비유를 표현하기 위해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홍당무 같이 빨갛게 된 얼굴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주제인데, 비유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 그 한 예로, '앵두 같은 입술' '세월이 유수와 같다', 아니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에 나오는 '내 누이 같은 꽃이여',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것들이 다 직유나 은유로 비유에 속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 비유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죄 사함을 못 받게 하려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성경 전체가 증거 하고 있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런데 정작 당신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죄 사함을 못 받게 하려 한다.'
이것이 목적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주 고심을 합니다.
별의별 해결방법이 속출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난해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오히려 난해한 것은 학자들이 주석에서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난해한 것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 구절이 난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아주 난해한 구절이라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하시는 분들이 외인(外人)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外人)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 사함을 못 받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 사함 못 받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외인들에게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하나님나라의 비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전수하십니다,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전수된 것을 폐쇄시킨다는 뜻입니다.
전해진 비밀인데 그것을 감추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알려주시고 외인 아웃사이더, 즉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 감추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추실 거면 아예 외인들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뭣 하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쉬쉬 하는 것처럼 입을 닫아버리시면 되는데, 외인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왜 이 상황이 빚어집니까?
외인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외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의 기회를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쉬 하고 입을 닫아버리시는 게 아니고 외인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꺼번에 천국의 비밀을 던져버리되, 외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 사함의 기회가 박탈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비유를 전하는데 천국의 비밀이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얘깁니다.

다들 듣고 있는 가운데, 이쪽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놀라운 미스테리 한 세상이 열려지고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그 말 그대로, 영어에서는 parable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옆에 나란히 둔다'라는 뜻이에요, '파라'라는 것이 옆에 나란히 둔다는 뜻이고, '발로'가 던진다는 뜻으로 옆으로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이 '얼굴이 홍당무 같다', 얼굴이라고 하는 사물을 홍당무를 옆에 갖다 대면서 얼굴의 상태를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줍니다.
'아,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구나!'
또, 세월이 유수 같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빨리 흘러간다, 시간이라는 것 옆에 흐르는 강물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태와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해줍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구름에 달 가듯이’ 그러면 뭔가 표현이 생동감이 있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다’ 이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음에 터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면 정말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가 시끄러운 가운데 전철에서 건너편에 앉은 아가씨 얼굴을 향해서 두 대학생 청년들이 ‘저 아가씨 얼굴이 홍당무 같다’라고 말했는데, 소음 때문에 ‘얼굴’이라는 말을 옆 사람이 못 듣고 ‘홍당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홍당무만 들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홍당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 ‘얼굴’을 못 들었으니까 카레에 들어가는 당근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당근이라든지 혼자서 난리인 거예요.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하는데 ‘세월’을 못 들었어요, ‘유수’만 딱 들었어요.
그러면 ‘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 강물이 잘 흘러간다는 얘긴가?’
흘러가는 물만 생각하는 겁니다, 유수와 관계되어지는 내 속의 생각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세월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같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관심도 개념도 그리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은 천국의 비밀에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뻥 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심령상태는 아직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외인과 같은 내용상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영붙이들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외인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밭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러저러한 밭에 뿌려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모르는 것은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뿌려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철에서 갑자기 얼굴이라는 말을 못 들은 친구가 '야, 홍당무 얘기는 왜 하냐?', 세월이라는 얘기를 못 들은 친구가, '아, 흐르는 강물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하면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외인이 누굽니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외인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길거리든 어디든지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가까이 갖고 오신 그 available 한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외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제든지 '지금 여기서'
천국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 갈 거야, 그래놓고는 지금 마음의 관심은 어떻게 돈 많이 버느냐에 있으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읽어도 내 속에 관심이 있는 것에다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홍당무 같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홍당무 들어간 카레라이스를 생각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입술이 앵두 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과일주스를 먹고 싶으니까 '앵두도 주스를 만들어 먹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말씀 전체 주님의 말씀 전체는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외인이다 보니까 천국에 잇대어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생동감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경계 안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 관심과 연결돼서 제멋대로 이해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

외인이 누구냐? 지금 현재 여기서 천국에 마음을 완전히 다 보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천국만 지금 가질 수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자

들이 바로 외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들어가고 갖고 싶은 사람이 이 성경말씀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게 마구 알려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천국이지만 마음에 이 세상 보이고 들리는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존재감을 갖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친해지고,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외인들아! 지금 현재 너희가 마음에 아예 지금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너희 마음의 관심이 천국이 아니지? 넌 외인이야, 그러니 내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 천국 옆에 별의별 비유를 다 갖다 대도 너는 오직 점점 더 모를 뿐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얘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죄 사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죄 사함은 받았는데, 천국에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 소원도 없고 오직 천국만으로 만족하겠다, 천국만으로 기쁘겠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죄 사함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아놓은 다음에, '아, 죽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1년 뒤쯤, 내년 이맘때쯤'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 사함 받은 김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능력 좀 받아가지고 지금은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 좀 벌어야 되겠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죄 사함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못 받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죄 사함을 못 받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천국이 실재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 옆에 갖다 댄 것이 비밀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을 못 받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 자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드러냈다고 합시다.
천국을 감춘 뒤에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드러냈다고 하면 '오! 나 천국 갈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보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 벌 때 돈 좋아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저 쫓아다니던 그 마음으로 천국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누구나 다 천국을 가겠다고 하고 이 세상을 버리겠다고 하겠지요.
세상을 버리고 등지는 게 회개요, 그게 죄 사함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등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 사함 받겠다고 달려들겠지요, 천국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좋고,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돈은 죽을 때까지 좋아요.
아무리 오늘의 번제 말씀을 들어도 죽을 때까지 돈은 좋은 거고, 죽을 때까지 일류대학은 좋은 거고, 죽을 때까지 높아지는 게 좋은 거고, 많아지는 게 좋은 거고, 오래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아버지를 선택하느라고.

세상에서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살이 떨릴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지!’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잘되는 게 너무 좋아서 마음을 다 뺏기고 자식이 잘되도록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외인들이 천국에 계신 아버지하나님께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노골적으로 확 보여줘 버리면, 다 돌이켜서 ‘나 천국 갈래, 아버지한테 갈래’ 이렇게 할 거라는 얘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 것이 모두가 다 좋게 여겨지고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이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오늘도 돈이 갖고 싶고, 돈 없어서 걱정되고, 몸이 아파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자식문제 때문에 한없이 걱정이 되지마는,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빼내서 주님께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고 외인이 아닌 자들이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는 자들이 비유를 들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천국과 하나님아버지가 한없이 한없이 날마다 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외인이 누굽니까?
아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상 경계 바깥에 있는 천국과 그곳에 계신 하늘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 외인입니다.
이 외인과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내인(內人), 예수의 사람들 천국의 영붙이들에게 똑같이 비유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영붙이들에게는 점점 더 풍성한 천국의 깨달음이 있고, 외인들에게는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끔 하시기 위하여 비유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이 정도라도 외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들려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천국의 비밀이 크게 크게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서 언제나 천국의 풍요로움, 아버지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